

협회 소식

윤오수 상근부회장, 2007 건축문화대상 공로상 수상



한국주택협회 윤오수 상근부회장이 올해 처음으로 합동 개최하는 '2007 건축문화대제전'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에서 공로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건축문화창달에 기여하고 건축문화대상 시행에 기여한 공로가 있는 사람에게 수여하는 순수 민간 차원에서 제정된 상이다.

윤오수 부회장은 1982년부터 1987년까지 5년 동안 건설부 건축과에 근무하면서 초창기 건축문화대상 제도 태동과 창립의 터전 마련에 직접 기여했으며, 1993년부터 1995년까지 3년 동안 건설부 건축행

정과정으로 건축문화대상 제도가 확실히 정착되도록 했다. 또 한국주택협회, 대한주택건설협회, 대한주택공사, 한국토지공사가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해 '한국건축문화대상'에 참여하도록 독려했고, 현재 한국주택협회 상근부회장으로서 건축문화대상 시행위원으로 적극 참여해 건축 문화 발전에 크게 기여했다.

윤 부회장은 건축문화대상으로 맺어진 인연을 중요시해 건축문화대상 수상자들의 모임인 '아키베리아'와 '아끼마오리' 모임을 주도적으로 이끌고 참여해 건축인들 사이에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이라는 칭송을 받고 있다. 이 밖에도 건축사 제도 개선, 건축사 시험 제도 개선, 건축 부조리 방지 대책 등 건축 행정 개선에도 기여한 바가 크다.

한편, 우리나라 건축 문화 발전을 위해 건설교통부, 대한건축사협회, 서울경제신문이 공동 주최하는 '2007 건축문화대상' 시상식은 10월 2일 COEX 그랜드컨퍼런스룸에서 열릴 예정이다.

운영홍보위원회 개최



협회는 지난 9월 11일, 서울 노현동 협회 회의실에서 봉희룡(한화건설 상무) 위원장을 비롯한 운영홍보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운영홍보위원회를 개최했다. 이날 회의에서 협회는 민간 택지 매입 가격을 감정 평가 금액의 120% 이내에서 인정하고

수도권 공공 택지의 전용 85㎡(25.7평) 이하는 계약 후 10년, 85㎡ 초과는 7년 동안 전매를 금지한 주택법시행령과 실수요자 중심의 전용 면적 85㎡ 이하 민영 주택(공공 택지포함)은 추첨 방식으로 25%, 가점제로 75%를 선발하는 청약 가점제 도입과 제2종 국민 주택 채권 매입 예정액의 상한액을 80%로 하향 조정하는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을 보고했다.

또 지방 경제 회생을 위해 투기과열지구·주택 투기 지역 해제, 주택 담보 대출 완화, 미분양 주택 구입 시 양도세 경감 등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건교부와 재경부에 건의했으며, 국회에 계류 중인 하자분쟁 시 하자 심사·분쟁 조정위원회의 조정 효력을 확정 판결과 동일한 효력을 부여토록 하고, 공공 시설의 범위에 학교를 포함토록 하는 개정안을 폐지토록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업계 의견이 반영되도록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운영홍보위원회에서는 유사 성격의 실무분과위원회를 통한 재조정해 운영홍보위원회 부회장에서 각 분과 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실무분과위원회의 활성화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한편, 협회는 지방의 투기과열지구가 해제되지 않은 지역의 실태를 조사해 추가 해제를 건의키로 하고 해당 지역에 건설 중인 주택 업체의 현황을 요청했으며, 재개발·재건축 활성화를 저해하는 규제 완화를 위해 회원사의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했다.

중국 주택 및 부동산 박람회 참관 시찰



협회는 중국과의 주택 및 부동산 분야 진출 및 교류 협력을 위해 지난 9월 7일부터 9일까지 회원사 임직원 18명과 함께 중국 산둥성 엔타이 국제 박람회에서 열린 중국 주택 및 부동산 박람회를 참관하고 황해성시 주택 단지를 시찰했다. 이번 박람회는 중국방지산업협회가 주관하고 엔타이 건설국, 부동산관리국이 담당하는 행사로서 5성 2시의 도시·주택 건설 발전 성과와 주택 상품, 건축 자재, 건축 기계, 공정 기계 등을 전시하는 1800부스 규모를 자랑한다.

한편, 협회는 이번 부동산 박람회 참관을 계기로 해외 주택 시장 진출을 위해 실무자의 해외 주택 건설 현장 시찰을 정례화하고, 해외 정보 수집을 위해 국내 업체 간의 해외 사업 분야 담당자들의 네트워크를 구축해나갈 예정이다.

태영건설, '데시앙' 디자인 교체

DESIAN

태영건설(대표이사 박종영)이 아파트 브랜드 '데시앙' 의 브랜드 디자인을 간결하고 모던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교체한다고 밝혔다. 새로운 디자인은 기존 3색 면위의 로고 대신 'Desian'이라는 글자

로만 이루어진 간결하고 주목도가 높은 형태의 워드 마크이며, 바탕색은 태영건설 심볼 색상인 버건디(와인색)를 사용했다. 태영건설은 지난해부터 신기업 이미지 구축을 추진해왔으며, 지난 4월 새로운 CI 도입으로 회사명과 심볼, 로고를 모두 교체했다.

'데시앙'은 Dessin(데생 : 불어로 그림, 설계, 디자인)에 인명 상징 접미어 'an'을 결합해 만든 브랜드로, '인락하고 미학적인 주거 공간의 디자이너'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으며, 디자인 아파트를 추구하고 있다.

LIG건영, 아파트 새 브랜드 '리가(Liga)'

Liga

Premium Living

LIG그룹 계열사 편입과 더불어 새롭게 출발하고 있는 LIG건영(대표이사 노태욱)이 하반기 본격적인 분양을 앞두고 신규 브랜드 '리가(리가)'를 탄생시켰다. Liga는 LIG가 건설하는 최고의 아파트라는 기본 개념에서 출발해 고객에게 이

로움을 주는 공간, 리가(利家)라는 네이밍 컨셉트를 담고 있다. Liga의 주 색상인 블랙은 아름다운 삶의 터전을 건설하고자 하는 LIG 건영의 미래 지향적인 의지를 담고 있으며, 오렌지는 창의적인 사고와 끊임없는 열정을 상징하고 있다. 이번에 새롭게 만들어진 브랜드는 오는 10월 분양 예정인 당진 신평 593세대, 경남 사천 902세대를 비롯해 연내 공급 예정인 서울 사당동, 남양주 금곡, 창원 동읍 지역의 새로운 아파트 브랜드로 사용할 계획이다.

대우건설, 새 비전 '글로벌 E&C 리더'



대우건설(대표이사 박창규)이 지난달 6일, 서울 남대문로 대우센터빌딩 컨벤션 홀에서 금호아시아나그룹 박삼구 회장과 신훈 부회장, 대우건설 박창규 사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대우건설 비전 선포식'을 개최했다.

대우건설은 이날 '아름다운 미래를 창조하는 글로벌 E&C(Engineering & Construction) 리더'라는 새 비전을 선포하고 7대 중장기 전략을 발표했다. 해외 사업 확대, 수익 기반 확충, 경쟁력 혁신으로 요약되는 7대 중장기 전략은 ▲ 글로벌 플랜트 사업 본격 전개 ▲ 비플랜트 해외 사업 확대 ▲ 개발 사업 강화 ▲ 그룹과의 시너지 극대화 ▲ 브랜드 강화 ▲ 프로젝트 관리 최적화 ▲ 외주 구매 강화 등이다. 새 비전과 중장기 전략은 급변하는 기업 환경과 무한 경쟁 시대의 새로운 도전을 맞아 세계적인 건설사로 거듭나기 위한 회사의 성장 동력과 지향점을 담은 것이라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대림산업, 사랑 나눔 헌혈 행사



대림산업(대표이사 김종인)이 9월 11일, 종로구 수송동 본사와 여의도 사옥에서 사랑 나눔 헌혈 행사를 열고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이웃들에게 사랑의 마음을 전했다. 대림산업의 5대 사회공헌 프로그램 중 하나인 '사랑 나눔 활동'의 일환으로 열린 이번 헌혈 행사는 임직원 300여 명이 참가했다. 대림산업은 앞으로도 혈액 부족으로 어려움을 겪는 이웃들을 위해 지속적으로 헌혈 운동을 펼쳐나갈 계획이다.

삼성물산, 이색 '라마단' 급식



삼성물산 이상대 사장이 이슬람 최대 축제인 '라마단' 기간에 이집트 현장을 찾아 직접 급식에 참여해 근로자들을 격려했다. 삼성물산은 이상대 사장과 김계호 부사장 등 임직원들이 참여한 가운데 이집트 카이로아메리칸대학(AUC) 현장에서 3000인분의 이프타르(일몰 후 저녁 식사)를 배식한 뒤 식사를 함께하는 등 현장 근로자들을 격려했다고 밝혔다. 이날 원활한 배식을 위해 기존 2000명을 수용할 수 있는 식당 외에 1000명을 동시에 수용할 수 있는 1개의 야외 가설 식당과 20개의 배식대를 마련했으며, 13일 시작된 삼성 직원들의 이색적인 배식은 라마단 기간 동안 계속된다. 삼성물산은 이 행사를 한국 직원들과 현지 근로자들의 화합과 사기 진작에 도움을 주고 이문화 이해를 통한 중동 시장 수주 확대를 위해 건설 현장이 개설된 이슬람권 국가에서 매년 실시하기로 했다.

진흥기업, 현대미술관과 '문화로 모시기 캠페인' 협약식



진흥기업(대표이사 전홍규)과 국립현대미술관(관장 김윤수)이 17일 덕수궁에서 '문화로 모시기 운동 1호기업' 협약식을 맺었다. '문화로 모시기 운동'은 문화관광부에서 실시하는 문화 접대비 제도의 기업 참여 캠페인이다. 이날 행사에는 문화관광부 박양우 차관,진흥기업 전홍규 대표이사, 국립현대미술관 김윤수 관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진흥기업은 국립현대미술관에 1억 원을 전달했는데, 이중 3000만 원은 일반 고객 및 협력사 접대를 위해 사용하고, 7000만 원은 미래의 잠재 고객인 청소년들의 미술관 무료 관람에 쓰겠다는 요지의 협약서에 서명했다.

현대건설, 명품 애프터 서비스 '힐스테이트, 홈커밍데이' 행사



현대건설(대표이사 이종수)은 입주 후 1년을 맞이하는 자사 아파트를 순차적으로 방문해 집중적인 애프터 서비스를 펼치는 '홈커밍데이' 행사를 시작한다고 밝혔다. 현대건설의 홈커밍데이 서비스는 타사와의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기 위해 입주 아파트의 세대별 하자를 중심으로 자발적 리콜 서비스를 실시하고 주차장, 놀이터, 조경 시설물 같은 공용부 보수 서비스도 함께 시행한다. 또한 각 세대를 방문해 침실 진드기 제거와 자외선 살균 소독을 비롯해 가정에서 시행하기 힘든 주방과 욕실의 바닥 배수구 청소와 세면기 트랩 청소 서비스도 제공할 예정이다.